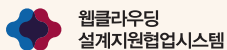




# 또 하나의 스마트팩토리, 웹 클라우드 설계지원협업시스템

대경지역본부 건설기계부품그룹

언제 어디서든 설계 소프트웨어(SW)에 접속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했다. 기업의 SW 구매 부담을 낮추고, 업무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 주는 웹 클라우드 설계지원협업시스템이 바로 그것. 제조업의 미래로 스마트팩토리가 떠오르는 가운데, 대경지역본부 건설기계부품그룹은 ‘설계’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조업이 스마트팩토리로 변모하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웹클라우드  
설계지원협업시스템

URL | [www.cetec.or.kr](http://www.cetec.or.kr)  
(설계지원협업시스템 접속)  
문의처 | 053-607-1129

## 비용 낮추고 효율성 높인 클라우드 기반 SW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공용 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놓고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2008년부터 대중화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오피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스마트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버 내 그룹웨어나 워드·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원격에서 구동,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렇듯 SW와 융합하면서 편의성을 높여온 클라우드 컴퓨팅이지만,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 설계 SW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구현하는 영역이다.

“설계용 SW 구매 비용은 1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에요. 여기에 매년 20% 가량의 유지·보수비를 내야 하죠. 대개 기업은 SW 두세 개 정도 사용하기에 관련 지출만 수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설계용 SW를 클라우드로 구

현해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판권을 가진 SW 개발 업체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탓에 쉽게 개발에 나선 기업이 없었어요.” 최성준 건설기계부품그룹장은 2011년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영역에 발을 내디뎠다. 구조 해석, 모델링 업무를 해야 함에도 설계 SW를 구매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구매비보다 적은 돈을 내고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나선 것이다. 당시 정부도 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과제를 진행할 때마다 SW를 중복 구매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건설기계부품그룹은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는 판권을 가진 SW 개발 업체의 승인을 얻은 뒤 클라우드에 SW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최성준 그룹장은 먼저 몇몇 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일일이 협조를 구했다. ‘중소·중견 기업에서 공동 활용하는 클라우드 SW로 라이선스비가 아